

## 겸손을 배우라

- 조용덕 선교사 / 2003. 2. 6 -

미지의 땅 아프리카로 가게 된 동기는 당시에 여러 이유들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 돌아켜 보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주님의 선교 열정과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저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신혼의 꿈을 꾸던 아내 양진 선교사와 첫 아이 인영, 그리고 공동체로 함께 살던 동료들이 케냐에서의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가정의 전세금이 확보된 후원금이었고 약속된 후원자 없이 시작된 모험이었기에 경제적 어려움은 우선된 기도 제목이자 지속적으로 믿음의 모험을 살게 하는 훈련의 기회였습니다. 무엇보다 공핍한 삶은 주변의 가난한 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었고 첫 사역인 거리의 고아들에게 우리의 식사 한 끼를 나누는 일을 시작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능력과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저희를 주님께서 아프리카 가난한 이들 속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속되는 공동체 생활과 긍휼 사역-고아들에게 한 끼 빵을 나누는 일, 빈민촌교회 사역 등-속에서 교만하고 부자의 마음을 가진 저희들은 겸손과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풍요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함께 경제적 어려움가운데 사역하는 현지 사역자의 외침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좁은 길이고 앞으로 가야할 길이 좁은 길에 불길이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은 나를 부끄럽게 했고, 고아들에게 빵을 나누는 것으로 안일함에 빠져 있는 나에게 '우리는 강박해요. 주님이 회개하라 해요.'라고 기도 후에 눈물 짓는 아내 의 회개는 나의 영혼을 흔들여 놓았습니다. '거리의 고아들을 나를 대하듯 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겸손을 배우는 길을 다시 걷게 합니다.

광야 생활 같은 시간을 보냈고 믿음으로 걸어온 모험의 삶의 여정도 있었습니다.

선교사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크고 작든 주님이 맡기시는 임무들을 완수해내기 위해 사역자들이 준비해야 할 역량들이 있습니다.

영성과 전문성, 그리고 이 두 가지 역량의 온전한 활용을 위해 공동체성이라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영성이라 함은 주님과 교제, 특히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삶에서 배우게 되는 겸손과 긍휼, 예배와 봉사를 감당하는 역량이라 생각합니다.

전문성은 다양한 사역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언어도 전문성에 속하는 역량의 하나인데, '언어 공부하다 순교할 각오를 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내 양진 선교사는 미용과 발 맞사지 네일 아트등을 습득하여 사역에 활

용하고 있고 저는 가구제작과 요리 등의 전문 기술 습득에 많은 시간을 투자 했었습니다.

공동체성은 영성과 전문성( 은사도 포함됨) 이 준비된 사역자들이 강한 팀웍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함께 사역하기위한 그릇의 역할을 하는 역량이라 생각합니다.

영성과 전문성, 공동체성 개발과 준비를 위한 키(KEY)역할을 하는 요소가 겸손임을 반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실제적이지 않은 것은 거짓이다." 선교 현장에서 듣게 되는 외침입니다.

거리의 고아에서 복음전도자로 부름 받아 20년이 넘게 거리전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현지인 동역자님은 저에게 '사랑을 말하지 말고 사랑을 보여 주라.'고 당부합니다.

'이 사회를 비난하지 말고 천국을 거부하라.' 이 말은 사역하고 있는 빈민촌 양철집 벽에 쓰여 있는 낙서입니다. 말 뿐인 복음, 입술에서 사라지는 사랑, 실제적인 봉사와 삶의 나눔이 없는 교회를 향한 거부의 외침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겸손히 배우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 무릎을 꿇고 봉사하며, 빵을 나누고 함께 십자가를 지는 선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